



초월의 정신과 범세계화의 정황 - 구약의 상징 구조에 대한 사회학도의 생각 하나 -

박영신 | 연세대 명예교수

1. 머리말

가정 예배 때 식구들이 함께 둘러 앉아 성경을 읽고는 생각을 나누었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구약을 만나기는 했지만, 나의 구약 이해는 입문 수준을 넘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학술 모임에서 내가 구약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학도로서 덧붙여볼 수 있는 생각 한 토막이 될 것이다. 사회학을 일으킨 창건자의 한 사람인 막스 베버의 글을 통하여 칼뱅 교도의 윤리 지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의 세계를 내가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비교 종교 사회학의 관심에 따라 여러 문명권의 종교를 논하는 데서 개신교의 밑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유대교를 논한 글을 읽은 다음 구약의 의미 세계를 내가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안에 내가 마냥 멈춰 있을 것도 거기에서 끝날 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구약학 쪽에서 사회학의 접근 방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구약의 역사와 양식과 편집에 주목하여 비평해온 연구의 주된 흐름에, 사회학의 이론 자원과 접근 방법을 끌어들이며 이스라엘의 사회 정황을 분석코자 한 움직임이 구약 학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한 데 문을 열고 색다른 연구의 지평을 연 것도¹⁾ 벌써 한 세대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구약학이 오랫동안 다져온 연구의 관심에서, 나아가 근대의 인식 틀을 벗어나 탈근대의 연구 관심을 주창하는 새로운 연구의 관심에서도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비판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판은 물론 구약학 쪽에서 모두 떠안아야 할 것은 아니다. 사회학 쪽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법을 채택한 연구자의 관심 폭과 깊이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연구자의 관점과 선호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회의 짜임새와 그 변화의 과정을 알아보코자 하여 사회학의 연구 방법을 끌어들이는 시도 자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있을지언정 깡그리 지나치지는 못하게 된 듯하다.²⁾ 그만큼 구약학은 사회학과 만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의 문제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벗어나 최근 여러 학문의 논의거리가 된 연구의 관심 하나에 눈길을 돌리고자 한다. 이 관심은 오래된 것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이기도 한 주제이다. 이것은 기원전 천년의 중간 몇 세기 동안에 나타나 인류 문명에 밑받침이 되어 그것을 버팀목으로 받쳐온 이른바 ‘굴대’(axial)의 상징 세계와 그것이 이룩한 변혁 또는 혁명에 대한 관심이다.³⁾ ‘굴대 관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에 대한 논의는 고대 유대교에 대

1) 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2) R. Routledge,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52-53, 특히 *달음* 109.

3) R. N. Bellah, "The Heritage of The Axial Age: Resource or Burden?"



하여 일찍이 베버가 보여주었던 관심 세계에 이어져 있다. 이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는 굴대 시대를 특징짓는 문명이 다만 고대 유대교에서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도 두루 나타났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서 먼저 이 굴대의 혁명에서 알맹이가 되는 내용을 짧게 살펴본 다음 나는 이 글의 주제에 맞춰 구약이 표상한 상징의 능력과 그 지향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범세계화 정황에 대하여 내가 앞서 풀이코자 했던 여러 글⁴⁾과 그 밖의 논의들을 구약의 의미 세계에서 비추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구약학 연구의 산더미에서 몇 개 부스러기를 긁어모으거나 그것을 뒤범벅 하는 논의로 들어서지 않고 내가 관심을 가져온 문제, 곧 범세계화 시대에 구약의 상징 세계는 어떤 의미의 빛을 던져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굴대 시대

‘굴대’라는 낱말은 수레의 바퀴 구멍에 가로 질러 끼워 수레가 바로 놓이도록 하고 움직이게 하는 나무나 쇠 축을 이른다. 모든 수레는 이 굴대 때문에 수레가 되어 움직인다. 이와 같은 동력 장치가 없이는 어떤 수레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만큼 굴대란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그 중심이 된다. 오늘날 인류가 터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의 중심축이 되어 바탕을 이루고, 이 밑바탕의 축에 힘입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굴대의 문명’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타난 시기를 ‘굴대의 시대’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4) Park, Yong-Shin, "Industrialization and Pollution in a Global Perspective," Park, Yong-Shin, "A New Morality for the Global Community," 박영신, "범세계화와 가능 세계," 제 9장, 박영신, "범세계 공동체와 규제," 박영신, "제 5차 지구시민사회포럼 개최사," 박영신, "범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제: 범세계 시민의 새로운 나라 모습."



이러한 생각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 적은 뜻으로 ‘굴대’라는 말을 쓰고 굴대의 문명이 나타난 때를 처음으로 ‘굴대의 시대’라고 불러 쓴 사람은 야스퍼스⁵⁾이다. 앞서 세계 종교를 사회학의 눈으로 비교 연구해온 베버의 영향을 받은 후학답게,⁶⁾ 그는 지금부터 2천 500년 전 그 어디쯤에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서,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서 생각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같은 시대에 동과 서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움직임은 그가 꿰뚫어본 것이다. 그 특징은 ‘절대의 존재와 자신과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이 의식은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인간을 이끌어 갔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초월’이라는 절대성을 감지하고 자신은 현존 상태에 얽매인 한계투성이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여 그 너머 구원이라는 목표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세계 종교’의 시작이었다. 인류는 “아직도”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살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점에서 “보편성으로 들어서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굴대 시대가 내놓은 생각이 그에 앞선 시대와 그 뒤에 이어지는 변화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짚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굴대의 시대에 대한 관심은 여러 사람의 학문 관심으로 이어졌고, 학술 모임의 주제가 되었는가 하면 주요한 저작으로까지 펼쳐 나오게 되었다. 이 주제에 끈질기게 매달려온 아이젠스타트는 앞서 이에 대한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놓기도 했다.⁷⁾ 하지만 오늘에 와서 굴대의 시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된 것은 2011년에 나온 벨라의 방대한 저작(*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때문이

5) K. Jaspers,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 2-8.

6) ‘야스퍼스의 철학은 베버를 마음에 두고 시작된 것’이라고 한 Heinrich(D. Heinrich, “Karl Jaspers: Thinking with Max Weber in Mind,” 528-544)와, Heinrich의 글이 굴대의 시대를 논하고 있지 않은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Joas(H. Joas, “The Axial Age Debate as Religious Discourse,” 9-29)를 볼 것.

7) S. N. Eisenstadt, “Introduction: The Axial Age Breakthroughs.”



다. 이 책이 다른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 관심에 따라 굴대 시대와 그 이후의 정황을 따져본 글을 발표하게 되었고, 뒤이어 이 글들이 책(The Axial Age and Its Consequences)으로 묶어 나오게 되어 이 주제는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황이 주는 직접성의 위압과 즉각성의 유행에 휘둘리기를 마다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서서 인류 문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신 세계의 큰 줄기에서 깊이 새겨보고자 하는 생각의 사람들에게, 굴대 시대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다.

굴대 시대의 이해는 오늘날에 와서도 야스퍼스가 생각했던 바와 그 바탕에서는 다르지 않다. 1975년 학술지「다달루스」(Daedalus)에서 굴대의 문명을 주제로 한 ‘특집’이 엮어 나왔을 때⁸⁾ 슈워츠⁹⁾는 기원전 7-8세기의 정신 및 도덕 세계에 나타난 굴대 시대를 꿰뚫고 있는 공통된 문명의 추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초월성’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다시 풀어보면 “뒤로 물러서서 너머를 바라다보는--현행의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성찰하는 일종의 물음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길”이다.¹⁰⁾ 이것이 ‘초월의 돌파’(transcendental breakthroughs)이다. 이에 집중케 되면 삶에도 중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현행의 세속 영역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 영역 사이에 긴장이 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굴대 시대에 와서 세속과 초세속의 영역 사이를 더욱 날카롭게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이 나타나고, 현존하는 것 그 너머 저 세상의 실재에 대한 더욱 높은 초월의 도덕 및 철학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명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초월의 비전에 맞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바꿔놓아야 했다. 굴대 시대 이전에는 세속의

8) 그 해 봄호의 ‘특집’ 제목은 “Wisdom, Revelation, and Doubt: Perspectives on the First Millennium B.C.”이었고, 여기에 여러 문명권에서 나타난 굴대의 문명을 논한 글이 실리었다.

9) B. I. Schwartz, “The Age of Transcendence,” 1-7.

10) 앞글, 3.





영역과 초세속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두루뭉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 질서의 정당성은 이 두 영역의 혼재와 유착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이 구분되어 삶을 재구성코자 하게 된 굴대 시대에 들어선 다음에는 정당성의 문제는 더 이상 불투명한 채로 간단하게 처리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온갖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¹¹⁾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앞에 적은 벨라의 책으로 이어져 나온 것이다. 그가 두 해 전에 내놓은 저작이 사회학뿐만 아니라 종교학과 신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 영역에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펴나온 것은 아니다. 오래 전 그가 고작 30대 중반의 나이에 시카고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에서, 그리고 파아스스와 아이젠슈타트와 함께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 진화’라는 세미나 과목을 열었을 때 벨라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바 있었다. 그때 그가 발표한 글이 널리 알려진 “종교의 진화”이다.¹²⁾ 짧기는 해도 이후 이 논문은 하버마스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글이다.¹³⁾ 벨라 스스로 ‘종교의 진화’라는 틀을 더욱 확장하고 널리 경험 세계에 적용하려면 저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그 논문에서 했던 말이,¹⁴⁾ 이번에 내놓은 800쪽에 가까운 거대한 저작으로 현실화된 셈이 되었다. 종교의 진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던 그때의 짧은 논문이나 인간의 진화에서 종교를 살펴보게 된 이 거대한 저작에서나, 그의 관심은 굴

11) S. N. Eisenstadt, "Introduction: The Axial Age Breakthroughs," 2-25.

12) 이 글의 원제목은 "Religious Evolution"(1964)이며, 우리말로 "사회 변동과 종교적 진화"로 옮겨졌다.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과 종교적 진화," 27-69.

13) 이 점은 단순히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이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느 대목에서 벨라의 '시민 종교'(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289)나 '종교 진화' 또는 '종교의 합리화'(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I*, 196)를 이야기하는 데서만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벨라 교수에게 직접 들은바 그가 한때 베를린에서 가르쳤을 때 특별히 '종교 진화'에 대한 생각을 귀히 여겨 좋아했다고 벨라 교수에게 전한 것이기도 한다.

14)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과 종교적 진화," 34.



대 시대의 문명 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번 책의 부제가 일러 주는 것처럼, 그는 구석기 시대부터 굴대 시대에 이르는 문명의 변동을 분석코자 하였다. 반세기 이전에 종교의 진화를 주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인간이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종교도 어떤 것에 붙박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그는 이 과정 안에 굴대 시대를 들여놓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논했던 것이다.

굴대 시대에 대한 그의 풀이가 돋보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 학자들은 야스퍼스 이후 최근의 아이젠슈타트에 이르기까지 여럿이지만 이들 누구도 이 엄청난 돌파의 문명을 낳게 된 그 원인과 과정을 밝히고자 하지 않았다. 벨라는 바로 이 점에 자신의 연구 관심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그는 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대어 이전의 문명과는 다른 새로운 문명이 나오게 된 그 원인과 과정을 설명코자 하였다. 그가 이해한 굴대 시대는 이와 같은 이론의 장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마치 근대성도 한 군데에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타난 '다양한 근대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의 줄기와 비슷하게 굴대의 문명도 어느 한 곳에서만 떠오른 '단일 굴대성'이 아니라 몇 개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다양한 굴대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굴대 시대에 들어 세계 곳곳에서 정당성의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었다고 앞에 적어두었던 것처럼, 현존하는 모든 것 그 너머의 어떤 실재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면서 현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질문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어느 것에도 예외가 없었다. 마침내 왕의 정당성까지도 질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누가 왕인가? 왕은 신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물음이 굴대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것이다.¹⁵⁾

넓은 뜻에서 굴대성은 의식 속에 진치고 있는 지배 모형들에 대한 “비

15) R. N. Bellah, "The Robert Bellah Reader," 266 아래.

판이고 대안”을 말하며, 그것이 우리가 들어서 있는 “비판의 시대”를 낳은 것이다.¹⁶⁾

3. 구약의 상징 구조

구약은 굴대 시대가 낳은 위대한 유산이다. 구약에서 이 시대는 베버가 말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 시기” 또는 “예언의 시대”가 될 것이다.¹⁷⁾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만큼 지난 두 세기에 걸쳐 구약학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논쟁을 여기서 내가 다시 살펴보거나 그것을 기증코자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기록되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 시기를 앞당기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늦추기도 하는 상황에서, 그 시대를 정확히 판가름하거나 그 주변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하나로 결론을 짓는 것마저 쉽지 않은 형편이다.¹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마땅히 구약학의 본령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굴대 시대에 나온 초월성의 특징을 구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따름이다. 이러한 관심에서 나는 예언의 전통과 예언자가 구약의 정신 그 밑바탕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코자 한 모습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부르그만¹⁹⁾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출 15: 11a) 하고 고백하고,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시 89: 8a)(나의 옮김) 하고 또

16) Arnaldo Momigliano는 기원전 600년에서 300년 사이의 고대 시대를 아스퍼스의 굴대 시대로 보고 그 특징을 규정코자 하였다. 위의 글은 벨라가 그에게서 따온 것이다. R. N. Bellah,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268.

17) M.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제 3장.

18) 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19)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268.



고백하고 나왔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극한 초월의 존재였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생각 때문에 고대 종교의 문명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 막강한 힘을 행사해온 ‘왕’의 지위가 문젯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언자들이 외치고 나온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유일신 생각이었다.²⁰⁾ 비록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그 뜻이 바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되었지만,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에는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와 개념 속에는 어떤 보편주의가 있었다.”²¹⁾ 바뀌 말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집단, 민족, 국가, 왕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편주의를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 세계가 왕권과 함께 이스라엘 자체를 비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상징 능력으로 기능하였다.

왕의 신성화와 절대성을 부정하는 구약의 생각²²⁾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몇 마디로 다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구약의 왕권 이해가 근동의 왕권 이해와 달랐다는 점이다.²³⁾ 구약에서 왕이 세워 지기는 했으나 그 왕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선택하는 자로 이해되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 자신을 공동체의 구성원 위로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남달리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오늘날의 말로 이것은 “입헌 군주제”의 왕과도 같았다.²⁴⁾

20)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는 일찍이 베버(M. Weber, *Ancient Judaism*, 133)가 개념화해 놓은 바 있다. 여러 신들 중에 오직 한 신만을 숭배하는 ‘일신 숭배’(monolatry), 가장 힘 있는 신에게만 기도하는 ‘단일신교’(henotheism), 또는 ‘다신교’에 맞서 신은 원칙으로 하나뿐이라고 하는 ‘일신교’(monotheism)라 하여, 그는 유일신 개념을 셋으로 갈라보았다. R. N. Bellah,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284, 304.

21) M. Weber, *Ancient Judaism*, 133.

22) A. J. Heschel, *The Prophets*, 606-617.

23) 임상국, “솔로몬의 지배체제와 신명기 역사신학,” 20-22.

24) R. N. Bellah,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312.





아래서 또 다시 논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기는 하되 다른 나라의 왕과는 구별되는 왕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왕권의 개념을 ‘초월’하는 의식 세계 위에 터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신분 자체가 절대적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예언자가 왕에 맞설 수는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지는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언자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사람에게 지나지 않았다. 누구이든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도구로 살아가야 할 뿐이었다.

다른 문명권에도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는 특별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종교 의례나 금욕 행위 또는 명상과 같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소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일 따름이며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카리스마’가 되었다. 예언자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예언자의 자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계명이었다. 그것을 지키라고 외치는 그것이 예언의 전제이고 정당성이었다.²⁵⁾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이들 예언자가 동시대인들에게 다그쳐 요구하고 가르친 내용은 포로 생활 이전에 만들어진 윤리

25) M. Weber, *Ancient Judaism*, 294-295. 베버의 ‘고대 유대교’ 연구(1952)[1917-1919]가 나온 지 60년도 더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자이틀린(I. M. Zeitlin, *Ancient Judaism*)은 베버와 꼭 같은 책 이름을 단 연구서를 내놓기까지 하였다. 그는 물론 베버의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새로운 해석을 내놓지는 못하였다. 다만 예언자의 카리스마에 대하여 그가 짧게 적어놓은 내용이 눈길을 끈다(I. M. Zeitlin, *Ancient Judaism*, 210-212). 그는 베버가 ‘카리스마’ 개념을 기원전 8세기에 처음 나타난 ‘고전 예언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 그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례’의 기능을 맡았을 수도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와 영”을 지닌 자로 이해될 수 있던 ‘이전의 예언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규정되는 ‘고전 예언자’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여기서 그는 베버의 카리스마를 좁게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와 이어, 카리스마는 여호와와 그 말씀과의 만남에서 체험케 되는 격렬한 놀라움과 황홀함과 함께, ‘말씀’ 그 자체가 비범한 경지를 자아낸다는 뜻에서 카리스마이고 또 카리스마의 ‘상징’이라고 확장해 볼 수도 있다며, 내가 앞서 카리스마를 넓게 풀어보고자 한 글(박영신,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사회 운동 연구의 분석적 개념으로서”, 제 1장)을 볼 것.





체계 위에 세워져 있다. 이와 비슷한 윤리 규범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계명에 버금하는 통일된 신앙 윤리로 체계 있게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 그러한 윤리 체계는 거대한 바빌론 제국과 애굽 제국에도 존재하지 않았다.²⁶⁾ 이 계명은 단순히 윤리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터한 것이었다. 이 믿음에서 계명이 선포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하는 윤리 공동체가 되었다.

이처럼 구약의 정신 구조에서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고 그러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이 재구성되어야 했다. 왕이라는 존재 뿐만 아니라 친족도 권위의 출처가 될 수 없었다. 다른 문명권이라면 행사할 수도 있을 왕의 성스러움도 친족의 일차성도 초월의 존재 아래에 있어야 될 항목일 뿐 어떤 형태로든 절대화될 수 없었다. 구약이 담고 있는 굴대성의 특징인 초월의 권위 앞에서는 성스러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이 부정되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월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베버가 개념화해 둔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세계를 거부하는 ‘현세 부정’의 의식 세계가 믿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²⁷⁾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구약의 초월 정신은 현존 질서 안에 들어서 있는 어떤 항목과 용해-융합-유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왕권이든 국가이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와 등식의 관계로는 올라설 수 없었다. 구약의 예언 전통은 바로 이러한 초월의 믿음을 표상하고 그것을 강화해 왔다. 예언자는 포로시대 이전에도 ‘바깥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였다. 현존하는 것 그것을 두둔하는 이해관계에서

26) M. Weber, *Ancient Judaism*, 254.

27) ‘부정의 개념과 그것이 담고 있는 논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식계는 둔감했다. 이 점은 굴대 시대를 이해하는 데, 나아가 정신사의 탐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 이이노가 사부로우의 연구가 돋보인다. 이에 대해(박영신, “일본에 맞선 일본인, 이이노가 사부로”)과 R. N. Bellah, “*Jeonaga Sabur and the Search for Meaning in Modern Japan*”과 M. Weber,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과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과 종교적 진화*,” 48-49를 볼 것.



예언자는 철저하게 벗어나 있어야 했다. 그는 시장이든 도시의 문전이든 열린 공공의 터에서 발언했던 선동가였다. 예언자는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발언했고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발언했다.²⁸⁾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지성인의 모습처럼, 예언자는 “권력자나 인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긋나긋하게” 받아들이고 인준코자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지성인이었다. 이러한 지성인의 참 모습²⁹⁾을 일찍이 예언자가 표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언자는 ‘공공의 지성인’이었다.

이 예언의 전통은 그러므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 있을 수 없다. 그 주변부에서 소리칠 수밖에 없다. 예언의 전통은 이러한 사회 위치와 뗄 수 없게 이어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회 위치와 떼어놓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고트월드가 이스라엘이 출현할 때 도시와 농촌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마침내 주변부의 농촌 거주민이 가나안의 중심부를 이룬 도시 문화의 지배 세력에 도전하고 나왔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이어질 수 있다.³⁰⁾

구약은 이러한 예언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자기 이해’의 틀로 기능하였다.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신 4:1)는 말씀을 지켜가야 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삶과 죽음을 뜻하였다는 점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서 그 자체가 절대적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어떤 권력과 인습의 구조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28) M. Weber, *Ancient Judaism*, 267 아래.

29) E.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s.” 박영신, “즐거운 유배자, 지성인의 삶.” 366.

30) 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462-463.



것이고, 이것은 굴대 시대 이전에 거룩한 신성을 가진 왕을 통하여, 나아가 종교 의례를 맡은 자와 현지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었던 관행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직접 소통해야 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하였다. 벨라의 표현으로 이것은 “텍스트의 종교”(a religion of the text)였다. ‘텍스트’ 종교는 어떤 지역 공간에 예배의 신을 모셔두는 ‘고착된 종교’가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는 종교”(a portable religion)이다.³¹⁾ 이스라엘이 보여준 믿음의 세계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었다. 말씀은 어떤 경계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굴대 문명을 특징지었던 초월에 바탕하고 있는 구약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서 있게 된 범세계화의 정황에서 어떤 적절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범세계화의 정황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4. 범세계화의 정황

지난 세기가 끝나갈 무렵 세계는 온통 범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책임을 맡고 있던 학술계 간지「현상과인식」이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1994년 봄에 학술모임을 열고 그때 발표된 글을 모아 〈범세계화의 구조와 과정〉이라는 특집으로 엮어놓은 바 있다(18권 1호/1994년 봄). 이 ‘특집의 글’에서 나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

31) 이러한 생각은 도시의 발달과 종교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 푸스텔 드 풀랑주의 논지와도 이어질 수 있다. de Coulanges/Numa Denis Fustel, *The Ancient City: A Study on the Religion, Laws, and Institutions of Greece and Rome*. 그는 가족 단위에서 시작된 종교가 고대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종교 의례의 대상이 공간/지역에 매여 있었으나, 기독교의 예배 대상이 공간/지역에 매인 존재가 아니었기에 기독교의 전파로 종교의 공간 고착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을 논증코자 하였다(박영신, 「역사와 사회 변동」 132-137). 계속하여 R. N. Bellah,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314-315.



가?’ 하는 세기말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적어두었다. 그때 세계화는 우리에게 절박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여 모든 나라가 무역 당사자처럼 되어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점차 줄여간다는 데 합의한 상태였다. 모든 나라가 이제 세계무역기구(WTO) 밑에 들어서야 했다. 자유 무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본이 막힘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경쟁은 범세계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어 세계가 이른바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었다. 보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그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던 것들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들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가 단숨에 이뤄져 갑자기 닥쳐온 것은 아니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게 삶 자체가 세계화되어 온 터였다. 자본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하여 국경의 담벼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국가와 자본은 오랫동안 결탁해 왔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였다. ‘세계 체제론’을 제창한 월라스틴³²⁾이 알려주는 바를 따르면 그러한 과정은 적어도 5백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은 개별 국가를 단위로 해서는 이해될 수 없고 ‘세계 체제’의 틀에서만 분석될 수 있다고 하여 새롭게 나타난 접근 방법 또는 이론이 이른바 세계 체제론이다. 이 눈으로 보면 국가는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체제론에서는 국가들 가운데 발전된 중심부와 그 대척점에 낙후된 주변부가 있고, 중심부에 시달리면서도 주변부를 시달리게 하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든 반주변부가 있다고 하고는, 세계가 이 셋으로 체제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있다.³³⁾

세계 체제론이 ‘범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기에 앞서 자본주의의 범세계화 현상을 논해 왔던 만큼 오늘에 와서 널리 쓰이게 된 이 날

32) I.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33) 박영신, “세계 체제론: 월라스틴의 이론과 접근 방식,” 289-306.

말에 대하여 마뜩찮게 여기는 것은 넉넉히 이해할 만하다. 실제로 세계 체제론에서는 세계화 현상이란 자본주의의 확장과 그것의 세계 체제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여 ‘세계화’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international)가 아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transnational) 현상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제 관계는 양의 차원에서 확장을 가져오지만 초국가 기제로서의 범세계화는 질의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통합시킨다. 초국가 자본 세력은 국내의 경계를 넘어 범세계의 수준에서 이합집산의 과정을 통하여 세력을 굳혀 간다.³⁴⁾

국가를 단위로 해서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와 나이키의 초국가 기업이 이해되기 어렵고, 소비주의 행태와 생활상이 풀이되기도 어렵다. 상품이 하나로 규격화되어 사회 계층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경까지 넘나들게 된 범세계화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의 향토 맛까지도 사라지게 되었다. 국제 관계가 지배했던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크기에서만 그러하였다. 범세계화라는 초국가 관계에 들어서서는 경제 활동의 성격과 품에서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투자 자본이 더 이상 국가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초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체제 자체가 범세계화되면서, 생산과 소비도 초국가 체제로 통합되었다. 생활 자체가 범세계 수준으로 한데 엉겨 통일을 이루게도 되었다. 이 점은 극작가 출신답게 하벨이 실감나게 잘 그려준 바 있다. 어느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가 마주한 풍경과 거기서 듣는 음악이나 광고판이, 그리고 젊은이들의 옷차림과 행동거지가 프라하의 어느 강변 식당이나 자기나라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것이 싱가포르에 있는 식당이었는데도 말이다.³⁵⁾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광풍이 모든 나라의 경계

34) W. I. Robinson, "Globalization and the Sociology of Immanuel Wallerstein," 1-23.

35) 이러한 생각은 체코가 낳은 ‘철인 정치가’ 하벨(박영신,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 - 비출라브 하벨의 역사 참여」)의 여러 글에 스며있지만, 벨라가 범세계화의 상황을 논하면서 바로 이 하벨의 글에 공감하여 한 문단

표지도 떼어내고 풍경과 상술을 휩쓸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몸치장과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조차도 ‘글로벌’하게 단일화해버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와 견해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유 무역이라 하여 모든 규제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자유케 하면 밝은 세계가 오게 된다고 세계화를 긍정하고 주창하는 범세계화론자,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온갖 병폐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주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회의론자, 그리고 이 두 입장의 중간에 서서 세계 공동체의 공공선을 향하여 참여하고 헌신하자는 ‘변혁론자’의 길이 있다.³⁶⁾ 이와 같이 세계화를 둘러싼 견해 차이와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세계화가 온전한 뜻에서 세계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교섭과 접촉의 관계와 형태가 범세계의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는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갔다.³⁷⁾ 모든 규제를 풀고 국경을 없애야 한다고 한 것은 결국 경제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세계화가 실제로 추구하는 범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경제 강대국에 유리하게 그들의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짜여 있다. 범세계화가 될수록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양극화의 도를 더하고 있을 뿐 그것이 완화될 기미는 여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치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를 휩쓸어온 ‘근대화’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서구화이고 미국화이고 나아가 ‘경제’의 근대화일 뿐이라고 비판받던 것처럼, 범세계화라는

을 자신의 글에 길게 따라 적고 있는 것을 볼 것. R. N. Bellah, "The Robert Bellah Reader," 352. V. Havel, "Harvard Speech."

36) D. Held/A. McGrew, "The Great Globalization Debate: An Introduction," 1-45. D. Held/A. McGrew, "Introduction," D. Held/A. McGrew(eds.), *Governing Globalization*, 1-21. D. A. Crocker, "Development Ethics and Globalization," 59-65. 그리고 김성환, 「세계화論2부」.

37) Park, Yong-Shin, "A New Morality for the Global Community," 박영신, "범세계화와 가능 세계," 제 9장. H. E. Daly,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73-80.

것도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된 형국이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의 주창자들이 기대하고 약속해 왔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낱말은 우리를 그르치기에 안성맞춤이다. 세계화 과정이 모든 차원에서 '범세계 이웃'으로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범세계 공동체'를 향하고 있지 않다. 범세계는 경제라는 한 가지 차원에서만 세계화이다. 그것은 그 쪽으로 기울어져 그쪽으로만 치닫고 있는 일차원의 세계화이다. 자유 무역이니 개방화니 하는 그럴듯한 이름 밑에서 경제 세력이 자체의 이익을 최대로 챙기고자 하여 가속화시키고 있는 경제 일변도의 세계화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 세계화의 체제로 축소되고 있다. 분명 지난 몇 십 년 동안 통신과 교통 시설의 발달을 이루면서 세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세계 경제의 망 속에 자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이고, 경제의 이익을 더하기 위한 수단의 통로로 이용되고만 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³⁸⁾ 오늘날의 세계화는 경제 관계에 터한 것이고 범세계 시장의 구축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경제 이익의 계산에 따라 어떤 영역에는 문을 열고 어떤 영역에는 문을 닫아버린다. 자본 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의 이동은 편하고 쉽게 제도화시키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불편하고 어렵게 막아두고자 하는 것은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위력은 이전 보다 더욱 커졌다.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범세계 수준으로 넓어진 만큼 그 위력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언제나 자본 우위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 자본 세력은 언제이고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절대 우위의 무기를 내두르며 노동의 저항을 간단하게 차단한다. 범세계화의 강도가 더할수록 자본 세력에 맞설 가능성의 기회는 사라진다. 이들 범세계 자본 세력은 자체의 행동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

38) 박영신, "인터넷과 지배 문화."

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 세력은 정강정책을 내걸고 세계 시민 앞에서 경쟁하여 그들의 지지와 투표를 얻어 선출된 바 없다. 그런데도 이 세력은 거대한 초국가 경제 체제 뒤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모호한 채로 남아 자체의 이익을 강화해가기 위하여 세계 경제를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면서 범세계 체제를 관장하고 범세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경제 세계화의 체제 안에서 사람은 더 이상 온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없다. 모두가 소비자로 보이고 생산자로만 보인다. 상품에 쉽게 넘어가는 구매자로 보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값싼 노동자로 보인다. 인간은 기껏해야 '인간 자본'으로 값이 매겨질 뿐³⁹⁾ 그 이상의 존재로 보이지 않고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세계 시장이라는 경제 차원의 세계화에 겨냥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을 어느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40여년의 냉전 체제 안에 살다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동서로 갈라졌던 대립과 경쟁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자 미국이 이끌어온 자유 시장 경제가 유일한 체제로 남게 되었다. 아니, 이 체제가 승리하였다며 의기양양하게 되었다. 반대는커녕 경쟁할 수 있는 상대마저 사라진 마당이라 이 체제는 힘들이지 않고 세계를 점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적의 절대 제국으로 올라섰다. 이 나라는 총칼로 올리대었던 지난날의 교조주의와는 달리 경제력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교조주의를 내세워 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범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검질긴 자본 세력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애틀에서도 런던에서도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런가 하면 범세계 시장 세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9) H. E. Daly,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H. E. Daly, "Globalization's Major Inconsistencies," 81-88.



는 소리도 나오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범세계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윤리의 문제와 함께 ‘범세계 정치’에 대한 생각과 주장도 나왔다.⁴⁰⁾ 이것들이 모든 점에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강포한 세계 시장 세력을 제어코자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밑바탕에서 떠받치고 밀고 나아가는 원초의 동기와 그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동력과 그 자원에 대한 논의는 여태 아쉬운 채로 남아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고 오는 것인가? 아래에서 나는 위에 논한 구약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이 점을 논하고자 한다.

5. 초월의 되새김

기원전 제 1천년의 중턱에서 나타난 굴대 시대의 구약 정신이 21세기를 넘어서게 된 이 범세계화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의 적절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둘 사이에 놓인 역사의 거리가 만만찮은 적절성에 대하여 솟제 문을 닫아버리고자 할 이들이 적잖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문을 열어두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해도 이들조차 그것은 만만찮은 생각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고 말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우선 앞에서 말한 구약의 정신을 표상해온 초월의 정신이 범세계화의 상황이 자아내고 있는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동기의 출처가 되고 동력원이 된다는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40) Park, Yong-Shin, "Industrialization and Pollution in a Global Perspective." Park, Yong-Shin, "A New Morality for the Global Community." 박영신, "범세계화와 기능 세계," 제 9장. 박영신, "범세계 공동체와 규제." 박영신, "제 5차 지구시민사회포럼 개최사." 박영신, "범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제: '범세계 시민의 새로운 나라' 모습." D. Held/A. McGrew(eds.), *Governing Globalization*, 1-21. D. A. Crocker, "Development Ethics and Globalization," 88 아래. M. J.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29-33. D. A. Crocker, "Development Ethics and Globalization."



초월은 개인과 사회와 문화 그 바깥에 그것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실재'를 가리키며 상징한다고 할 때,⁴¹⁾ 그것은 구약의 상징을 빌리어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킨다. 그만이 초월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이런 까닭에 절대 권위를 지니고 명령하거나 숭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에 아무 것도 없다. 그러한 초월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 조건의 사슬을 벗어나서 높이 하늘의 눈으로 아래의 세상을 넓게 내려다 볼 수 있게 된다. 보기를 들어, 계층 분화에 따라 지배-피지배 관계의 삶터에 얽매어 그 너머의 다른 삶터를 볼 수 없게 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부추기는 능력도, 초월의 의미 세계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초월의 믿음은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능력을 마련해준다.

초월의 존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현존하는 것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상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믿음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표상되어 나왔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였다. 우상 숭배는 단호히 거부되고 타도되어야 했다. 숭배를 강요하는 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와는 등식화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왕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가능했던 상징 능력이 여기에 있었다.

이 전통은 때로 바깥 힘에 묻혀버리곤 했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삼 강조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이것은 좁은 뜻에서 성상 파괴의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았다. 히브리의 전통 가운데 공화국의 사상이 들

41) R. N. Bellah, "Transcendence in Contemporary Piety," 196-197, 202.

42) C.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s*. R. N. Bellah, "Epilogue: Meaning and Modernity: America and the World," 273.

어 있다는 논지를 편 넬슨⁴³⁾이 밝혀두었듯이 이 공화주의는 일찍이 영국에서 일어난 왕권 타도의 시민 저항을 밑에서 떠받쳐준 정신 동력의 버팀목이었다. 그의 책 제목 '히브리 공화국'은 제도 교육에서 공화국을 이야기할 때면 으레 고대 로마나/와 고대 그리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통상의 지식을 곧바로 흔들어놓는다. 나아가, 이 책은 통상 시인으로만 알려진 밀턴이 실상 히브리 전통을 들어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선명하게 공화정을 주창한 사상가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행위 그 자체가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계명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 그를 숭배해야 했던 의식의 부자유함에서 자유케 하였다.⁴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곧,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오만불손한 행위였다.⁴⁵⁾ 앞서 벨라의 풀이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있게는 되었지만 그것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초월의 정신에 이어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직 여호와만을 내세우는 초월의 믿음은 비판 능력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체제를 절대화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비판하여 마침내 돌파케 하는 파괴력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초월의 믿음을 가진 자와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현존 질서를 비판하는가, 아니면 감싸는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 이 비판은 중심을 겨냥하는 주변에서 나오고, 중심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겨냥한다. 부르그만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제국의 도시 전통이 아니라 '지방 전통'이

43) E. Nelson, *The Hebrew Republic: Jewish Sources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al Thought*, 23-56.

44) E. Nelson, *The Hebrew Republic*, 46-50.

45) 박영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⁴⁶⁾ 이 전통은 권력과 재력이 모여 있는 도시에 사로잡혀 그 바깥을 볼 수 없게 된 체제 중심부 사람들의 딱 막힌 생각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체제 해체의 힘으로 나타난다. 예언자들은 초월성에 터하여 이 지방 주변 문화의 귀함을 알아 그것을 대변코자 한 제국 체제의 비판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표상한 초월의 정신은 현존 체제의 소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 체제의 입장을 거들어 주고 체제 유지의 논리를 널리 전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표상한 이 초월의 정신을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범세계화 시장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하여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려한 소비의 광란 그 한 가운데서 집 없이 길거리를 떠돌며 한데서 잠자야 하는 노숙자의 빈궁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범세계화의 모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범세계화의 체제를 옹호하지 못한다. 다국적 기업과 은행의 우두머리들은 해마다 가당찮은 거액의 성과급을 끼리끼리 주머니에 넣어주는 호사스런 파티를 열지만 일자리를 잃은 자들은 쪼로 쌓이는 빈곤을 어찌지 못하여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몰려나야 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삶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범세계 시장 체제의 실패를 소리쳐 알린다. 사치한 범세계의 도시 바깥으로 내쫓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저지룰 수 있는 온갖 ‘특권의 불의’를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버젓이 저질러대고 있는 이 어두운 범세계화의 뒹뒹이를 보고, 믿음의 사람은 침묵하지 못한다. 경제 이익의 극대화에 얼굴을 파묻고 사는 나머지 그 극대화의 저쪽을 볼 수 있는 눈을 아예 잃게 된 오늘의 범세계화 상황에서, 초월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범세계화 체제의 불공평함을 비판할 수밖에

46) W. Brueggemann, *Out of Babylon*.



에 없다.

초월의 감수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힘 있는 자들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질문하고 그것과는 다른, 차라리 거기에 맞서 저항하는 논리를 펼친다. 체제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 걸핏하면 늘어놓는 복지 예산의 과다지출이나 예산 부족의 논리에 맞서, 초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다’란 누구의 잣대로 어떻게 잴 것인지를 질문하고, 과연 그 지출이 너무 많으며 그 예산이 실로 부족한가 하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다’고 떠드는 가진 자의 주장은 결국 세금을 통하여 공평하게 걷고 나누지 않아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 초월 능력의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린다. 믿음의 사람은 틀에 박힌 체제의 고정 관념에 매인 포로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향하여 대들어 묻고는 진실의 왜곡과 조작을 규탄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속칭 전문 지식 세력의 체제 지향성과 이 세력의 방자함⁴⁷⁾을 또 규탄한다. 그리고는 저 변두리의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러움은 접어두고 현존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평평거리며 사는 중심부 세력의 거짓된 행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돌파한다. 이 행태에서는 중심부의 강대국과 주변부의 약소국이 따로 없고, 좌파 국가와 우파 국가도 따로 없으며, 다수당과 소수당도 따로 없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그 나름의 모순된 불공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초월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월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는 사회의 상층부가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힘없는 그들도 상층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값있는 존재라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하고,⁴⁸⁾ 억압과 침묵의 강요와 독선과 현상유지의 체제에 대하여 공공의 선을 향한

47) 앨빈 W. 골드너, 「지성인의 미래와 새 계급의 성장」

48) K. K. ng/W. Homolka(eds.), *How to Do Good and Avoid Evil: A Global Ethic from the Sources of Judaism*. 특히 H. K. ng, "Judaism and A Global Ethic," 7-18.

대안의 가능성을 외쳐야 한다.⁴⁹⁾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초월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현존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높이 예찬하지 못하며 두둔하지 못한다.⁵⁰⁾ 그는 가장 깊은 뜻에서 비판자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초월의 정신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⁵¹⁾ 때로 제국 체제가 던지는 고깃국의 유혹에 빠져 시들 수도 있고, 제국의 힘이 주는 압력을 받아 쇠잔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지켜가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제국의 체제에 맞선다. 이 제국은 반드시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 아니다. 지난날의 소비에트나 그것과 닮았던 미국만도 아니다. 소비에트 소멸 이후의 미국만이 제국인 것도 아니다. 예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의하고 오만한 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라고 비판하지만⁵²⁾ 물론 그 제국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다. 근본에서 제국이란 영토와 상관이 없다. 제국이 이끌어가는 그 독단의 힘과 그것이 몰아가는 제국 지향성, 곧 제국의 의식 세계 그것이 제국이고 제국 체제이다. 그것은 원주민을 못 살게 구는 약소국 중남아메리카의 어느 국가에도 있고, 자연을 마구 더럽히고 훼손해가면서도 개발은 미룰 수 없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다수의 생태 무지와 무감각함에도 있으며,⁵³⁾ 제국을 따라 붙이고자 하여 원전을 수출까지 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도록 몰아가는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속에도 있다.⁵⁴⁾ 부르크만의 '제국 메타포'에서 배울 수 있듯이,⁵⁵⁾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49) W. Brueggemann, *Journey to the Common Good*.

50) P. D. Hanson, *Political Engagement as Biblical Mandate*.

51) 박영신, "초월의 추방, 그 문화의 정황."

52) R. N. Bellah, "The New American Empire: The Likely Consequences of the 'Bush Doctrine'." W. Avram(ed.), *Anxious About Empire: Theological Essays on the New Global Realities*. W. Brueggemann, *Out of Babylon*.

53) 박영신, "도전하는 '생태주의와 가치 이론의 재구성.'" 박영신, "대항 문화 운동으로서의 생태주의," 박영신, "탈개발주의를 향한 도덕 관심의 구조."

54) 박영신, "제국의 지배와 인간의 책임 - 나의 공공 설교," 18-31.

55) W. Brueggemann, *Out of Babylon*, 109-129.



곳이 ‘애굽 제국’이고 ‘바빌론 제국’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초월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면 변방에서 유배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⁵⁶⁾ 결코 제국 체제를 예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평과 불평등의 체제를 비판하고 대안의 가능성을 위해 일한다. 초월 감수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범세계 제국 체제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넓게는 기독교가, 좁게는 개신교의 정신이 굴대 시대에 나타난 구약의 초월 정신을 잇고 있다. 야스퍼스 이후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넓은 뜻에서 초월성의 출처가 어느 하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신교의 정신은 초월의 돌파력을 가장 끈질기게 지켜가고자 하였다.⁵⁷⁾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이다. 그 정신을 가장 강렬하게 표상해왔다는 칼뱅주의 윤리조차도 자체의 강렬한 급진성을 잃고 오늘날의 ‘쇠우리’(iron cage) 속에 갇혀 거대한 타성의 체제에 한낱 부속품으로 작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⁸⁾ 이것이 개신교 정신의 종말을 일러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정신의 갱생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내릴 수 없다. 그것은 판에 박힌 보수니 진보니 하는 딱지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⁵⁹⁾ 문제의 밑뿌리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초월의 정신을 자기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가는 체제 저항의 사람들 곧, 예언자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후예들이 얼마나 초월의 ‘파열 능력’에⁶⁰⁾ 마음 문을 열어두는가 하는 자기 검혀와 끈질김에 달려 있다.

56) 박영신, “즐거운 유배자, 지성인의 삶,” 제 11장, 박영신, “제국의 지배와 인간의 책임 - 나의 공공 설교”

57) M. Weber,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박영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 제 9장.

58) 박영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 268-274; 박영신, “칼뱅주의 해석의 ‘오류 지점: 친화력의 논리와 축소의 원리,” 6-46.

59) 박영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 268-274. 박정신,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해파: 그 역사변혁의 파괴력,” 6-46.

60) W. Brueggemann, *Disruptive Grace: Reflections on God, Scripture, and the Church*, 364.



이틀린⁶¹⁾이 마땅찮게 여기는 것처럼 베버가 고대 유대교를 논할 때 소수의 예언자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은 구약학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벨라가 말하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텍스트의 신앙’이 되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어느 거룩한 공간 안에 갇힐 것도 어느 특정 사회 집단에 한정될 것도 아니게 되었다. 종교개혁 정신의 급진성에 더하여 정보의 개방성이 확보된 오늘날에 와서는 예언자가 소수일 이유나 조건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초월 정신의 담지자이고 마땅히 예언자이다. 베버가 개신교 윤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리하여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서 살아갔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 사회라고 하는 오늘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고결한 뜻에서 참다운 시민이다. 다른 말로, 초월의 정신을 지고 사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만인 제사장)이자 ‘예언자’(만인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⁶²⁾

6. 맺음말

나의 선생 벨라 교수는 일찍이 “모든 신학은 사회학[....]을 품고 있고 모든 사회학은 신학을 품고 있다”⁶³⁾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서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학문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는 신학과 사회(과)학은 하나의 지성 세계에 속한 ‘부분’이라 했다. 이 두 학문을 관계 짓

61) I. M. Zeitlin, *Ancient Judaism: Biblical Criticism from Max Weber to the Present*, 282.

62) 박영신, “개신교 정신과 ‘시민다움’의 삶.”

63) R. N. Bellah, “Transcendence in Contemporary Piety,” 206.



지 않으려는 것은 학문의 파산을 자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⁶⁴⁾ 나는 분명 사회(과)학의 영역에 들어서 있는 사회학도이지만 벨라 교수를 따라 신학과의 만남과 대화 없이 사회학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답답하고 비좁게 만든다는 학문 정신을 지켜오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나는 구약의 초월 정신과 범세계 상황을 살펴 이 둘을 이어보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영역이나 차원에 놓여 있지 않는 다층다차원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어느 한 학문의 전제만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과 학문이 만나 서로 귀 기울여 함께 배우면서 문제를 더욱 넓고 깊게 파헤쳐가야 할 따름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범세계화를 둘러싼 논의에는 가치와 윤리의 관심이 이를 데 없이 부족하다. 그러한 관심조차도 겨우 제도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 풀이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는 경제주의 지향성과 함께 전래하는 친족 중심의 비좁은 행동 지향성⁶⁵⁾이 뿌리내리고 있어, 우리의 기독교/교회가 뒤틀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떼어놓고서는⁶⁶⁾ 물론 범세계화의 문제도 풀릴 수 없고 시민 일반⁶⁷⁾과 ‘범세계 시민’이나 ‘범세계 이웃’의 문제도 논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나는 굴대의 돌과 전통을 담아 그것을 기억해오고 있는 구약의 정신 가치를 귀하게 보고 그것을 상징 자원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코자 하였다. 오늘의 범세계화 체제를 뒤흔들어 놓고 그것을 돌파하여 더욱 온전한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실 부정의

64) R. N. Bellah, "Transcendence in Contemporary Piety," 207.

65) 송재룡, "한국 사회의 삶의 정치학과 아버지." 송재룡/정상근,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 습속'이 시민의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황직, "한국 사회 운동 참여자의 문화적 습속: 가족, 민중, 시민." 정재영, "한국 가족의 자녀 교육," 박영신/정재영, 「현대 한국 사회와 기독교」

66) Park, Yong-Shin, "Hereditly in Korean Churches." 박영신, "사회 구조, 통일, 사회 통합." 박영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 세습'"

67) 박영신/이승훈, 「한국의 시민과 시민 사회: 사사로운 개인에서 공공의 시민으로」



윤리 지향성이 구약의 상징 구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초월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새겨 봐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와 손을 통하여 저지를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되었고 그것이 호소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⁶⁸⁾ 막강한 범세계 제국 체제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것은 분명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나긴 싸움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주저앉아버리는가 하면 어찌지 못하고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가기도 한다. 이러할 때에도 초월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지켜가는 말씀의 사람은 전능의 자리로 올라선 범세계 시장의 제국 체제에 저항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mammon에 저항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범세계 시장과 경제 체제로 나타난 mammon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도 저항해야 한다.⁶⁹⁾ 이 저항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능성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참고문헌

골드너, 엘빈 W., 「지성인의 미래와 새 계급의 성장」(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김성환, 「세계화론」(파주: 지문당, 2010).

박영신,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사회 운동 연구의 분석적 개념으로서,” 「人文科學」 제 35집(1976년)= 박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제 1장.

_____,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 「현상과인식」 제 4권 4호(1980

68) R. N. Bellah, “The Heritage of The Axial Age: Resource or Burden?” 462-465.

69) H. Cox, “Mammon and the Culture of the Market: A Socio-Theological Critique.”



- 년 겨울)= 박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81), 제 9장.
- _____, “세계 체계론: 왈라스틴의 이론과 접근 방식,” 「사회학연구」 셋째책(1985년)=박영신,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서울: 민영사, 1992), 제 8장.
- _____,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_____, “즐거움 유배자, 지성인의 삶,” 「현상과인식」 제 17권 2/3호(1993년 여름/가을)=박영신, 「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서울: 현상과인식, 1995), 제 11장.
- _____, “범세계화와 가능 세계,” 「현상과인식」 제 18권 1호(1994년 봄)=박영신, 「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서울: 현상과인식, 1995), 제 9장.
- _____,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바츨라브 하벨의 역사 참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범세계 공동체와 규제,” 「사회운동연구」 통권 2호(2001년).
- _____, “인터넷과 지배 문화,” 「사회 이론」, 2001년 봄/여름호.
- _____, “도전하는 ‘생태주의’ 와 가치 이론의 재구성,” 「현상과인식」 제 25권 1/2호(2001년 봄/여름).
- _____, “대항 문화 운동으로서의 생태주의”(연세환경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주제 발표/2001년 10월 12일/연세대 알렌관).
- _____, “제 5차 지구시민사회포럼 개최사”(유엔환경계획-UNEP-과 한국위원회 공동 주최/2004년 3월 26-28일/제주도 서귀포)(자료집)= <나의 ‘개회사’>. <http://yeramchurch.org>
- _____, “일본에 맞선 일본인, 이에나가 사부로,” 「현상과인식」 제 30권 1/2호(2006년 봄/여름).
- _____, “‘초월’의 추방, 그 문화의 정황,” 「현상과인식」 제 32권 3호(2008년 가을).



- _____, “사회 구조, 통일, 사회 통합,” 「신학과 실천」 제 19호/하(2009년 여름).
- _____, “칼뱅주의 해석의 ‘오류 지점’ : 친화력의 논리와 축소의 원리,” 「현상과인식」 제 33권 3호(2009년 가을)=한국인문사회과학회(위원장), 「칼뱅주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에서」(서울: 북코리아, 2010).
- _____, “범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제: ‘범세계 시민의 새로운 나라’ 모습,” 「사회 이론」 통권 40호(2011 가을/겨울).
- _____, “제국의 지배와 인간의 책임 - 나의 공공 설교,” 「본질과 현상」 통권 24호(2011 7년 여름). (권두 에세이).
- _____, “개신교 정신과 ‘시민다움’ 의 삶,”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조 발표(감신대학교/2008년 11월 15일)=박영신, 「현상과인식」 제 37권 4호(2011년 겨울).
- _____, “탈개발주의를 향한 도덕 관심의 구조” (2011 박경리문학제 <환경포럼> 주제 발표/2011년 10월 28-29일/원주 토지문화관)=박영신, 「본질과 현상」 제 27권(2012년 봄).
- _____,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2012년 2월 5일/예람교회설교).
<http://yeramchurch.org>
- _____,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 세습’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2차 심포지엄/2013년 2월 19일/청어람). <http://yeramchurch.org>
- 박영신/정재영, 「현대 한국 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 2006).
- 박영신/이승훈, 「한국의 시민과 시민 사회: 사사로운 개인에서 공공의 시민으로」(서울: 북코리아, 2010).
- 박정신,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학과: 그 역사변혁의 파괴력,” 「현상과인식」 제 33권 3호(2009년 가을)=한국인문사회과학회(위원장), 「칼뱅주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에서」(서울: 북코리아, 2010).
- 벨라, 로버트, “사회 변동과 종교적 진화,” 로버트 벨라/박영신 옮김, 「사회 변동의 상징 구조」(서울: 삼영사, 1981).

송재룡, “한국 사회의 삶의 정치학과 아버지,” 『현상과인식』 제 28권 4호 (2004년 겨울).

송재룡/정상근,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 습속’ 이 시민의 ‘시민 참여’ 에 미치는 영향: 시민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제 35권 4호(2011년 겨울).

이황직, “한국 사회 운동 참여자의 문화적 습속: 가족, 민중, 시민,” 『현상과인식』 제 28권 4호(2004년 겨울).

임상국, “솔로몬의 지배체제와 신명기 역사신학: <이스라엘의 왕도>의 법제사를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제 68호(2010년 여름).

정재영, “한국 가족의 자녀 교육,” 『현상과인식』 제 28권 4호(2004년 겨울).

Avram, W.(ed.), *Anxious About Empire: Theological Essays on the New Global Realities*,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4).

Ahlstrom, Gustaf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Bellah, Robert N., “Ienaga Saburo and the Search for Meaning in Modern Japan,” Marius B. Jansen(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_____, “Transcendence in Contemporary Piety,” Robert N. Bellah,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_____, “Epilogue: Meaning and Modernity: America and the World,” R. Madsen/W. M. Sullivan/A. Swidler/St. M. Tipton(eds.), *Meaning and Modernity: Religion, Polity, and Sel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_____, “The New American Empire: The Likely Consequences of the ‘Bush Doctrine’ ,” Wes Avram(ed.), *Anxious About Empire*:

- Theological Essays on the New Global Realities*,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4).
- _____, “The Robert Bellah Reader,” R. N. Bellah/St. M. Tipton(ed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 _____, “The Heritage of The Axial Age: Resource or Burden?” R. N. Bellah/H. Joas(eds.), *The Axial Age and Its Consequence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Bellah, R. N., “Introduction” R. N. Bellah/H. Joas(eds.), *The Axial Age and Its Consequence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_____, *Journey to the Common Go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_____, *Out of Babyl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 _____, *Disruptive Grace: Reflections on God, Scripture, and the Chur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de Coulanges/Numa Denis Fustel., *The Ancient City: A Study on the Religion, Laws, and Institutions of Greece and Rom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Cox, Harvey, “Mammon and the Culture of the Market: A Socio-Theological Critique,” R. Madsen/W. M. Sullivan/A. Swidler/St. M. Tipton(eds.), *Meaning and Modernity: Religion, Polity, and Sel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Crocker, D. A., “Development Ethics and Globalization,” V. V. Gehring(ed.), *The Ethical Dimensions of Global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7).

Daly, H. 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V. V. Gehring(ed.), *The Ethical Dimensions of Global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7↵).

_____, “Globalization’s Major Inconsistencies,” V. V. Gehring(ed.), *The Ethical Dimensions of Global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7↵).

Eisenstadt, S. N., “Introduction: The Axial Age Breakthroughs--Their Characteristics and Origins,” S. N. Eisenstadt(ed.), *The Origins and Diversity of Axial Age Civilizat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Eire, C. M. N., *War Against the Id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Gottwald, N. K.,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New York: Maryknoll: Orbis Books, 1979).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I*, (Boston: Beacon Press, 1984).

_____,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Beacon Press, 1987).

Hanson, P. D., *Political Engagement as Biblical Mandate*,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0).

Havel, V., “Harvard Speech” (1995년 6월 8일) <http://www.vaclavhavel.cy>

Heinrich, Dieter, “Karl Jaspers: Thinking with Max Weber in Mind,”

- Wolfgang J. Mommsen/Jürgen Osterhammel(eds.), *Max Weber and His Contemporaries*, (London: Unwin Hyman/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1987).
- Held, D./A. McGrew, “The Great Globalization Debate: An Introduction,” D. Held/A. McGrew(eds.),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Cambridge: Polity, 2000).
- _____, “Introduction,” D. Held/A. McGrew(eds.), *Governing Globalization*, (Cambridge: Polity, 2003 ㄱ).
- _____,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Cambridge: Polity, 2003 ㄴ).
- Heschel, A. J., *The Prophets*, (New York: Harperperennial, 2001).
- Jaspers, K.,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1949].
- Joas, H., “The Axial Age Debate as Religious Discourse,” R. N. Bellah/H. Joas(eds.), *The Axial Age and Its Consequence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Johnson, B., *Moses and Multicultur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 Küng, H., “Judaism and A Global Ethic,” H. Küng/W. Homolka(eds.), *How to Do Good and Avoid Evil: A Global Ethic from the Sources of Judaism*, (Woodstock, Vermont: Skylight Paths, 2009).
- Küng K./Walter Homolka(eds.), *How to Do Good and Avoid Evil: A Global Ethic from the Sources of Judaism*, (Woodstock, Vermont: Skylight Paths, 2009).
- Nelson, E., *The Hebrew Republic: Jewish Sources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Park, Yong-Shin, "Industrialization and Pollution in a Global Perspective" (PSR Paper/1984년 7월)(미발표).
- _____, "A New Morality for the Global Community," Young Seek Choue/Jae Shik Sohn(eds.),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Seoul: UNESCO HQs/Kyung Hee University, 1996).
- _____, "Heredity in Korean Churches," (Presented for Shorenstein APARC Seminar Series,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on May 4, 2012).
- Routledge, Robin,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8).
- Robinson, W. I., "Globalization and the Sociology of Immanuel Wallerstein: A Critical Appraisal,"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6/6(2011년 11월).
- Said, E.,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s" (Leith Lecture), *The Independent*, 1993년 6월 24일.
- Sandel, M. J.,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Schwartz, B. ., "The Age of Transcendence," *Daedalus*, 104권 2호 (1975년 봄).
- Wallerstein, I.,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Weber, M., *Ancient Judaism*, Hans H. Gerth/Don Martindale(tran. & eds.), (New York: Free Press, 1952).
- _____,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Hans H. Gerth/C. Wright Mills(tran. & eds.), Max Weber,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_____,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63).
Zeitlin, I. M., *Ancient Judaism: Biblical Criticism from Max Weber to the Present*, (Cambridge: Polity Press, 1984).

검색어

굴대 시대

초월성

세계화

예언자

베버

벨라

The Spirit of Transcendence in A Globalizing
World
- A Sociologist's Thought on the Symbol Structure
of th Old Testament -

Yong-Shin Park, Ph.D.
Professor Emeritus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situation of today's globalization through the symbol structure of the OT. This symbol structure is characterized as the spirit of transcendence in 'the axial age' the term which was firstly named by Jaspers. By using the OT prophets' belief of transcendence, the present writer assumes, we may criticize and overcome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it may be necessary that the present writer as a sociologist admits the influence of the German sociologist M. Webber, who stretched his concern over the ancient Judaism, in terms of grasping the importance of the prophetic tradition, and also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sociologist Bellah, who made the idea of ‘the axial age’ an important issue in this age, in terms of confirming the existence of the transcendent world in the OT.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problem of globalaization by the help of the idea which I have already presented for the issue of globalization as well as by the help of some other scholars’ opinion. In the process of globalaization the world markets became wide open, under the situation which the giant companies of much capital made a huge profit. In doing so, Globalaization has lost its balance.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voices which call for the control of the world markets, we hardly find any serious effort to define its motive and driving force which supports and leads the globalaization.

Here this paper moves to the spirit of transcendence in the OT, by which we may find the power of the symbol leading to a successful overcome of the contradictory situation of the globalaization. The belief of transcendence does not absolutize any of the present thing. It rather demands transformation of it by the norm of the transcendence. We need to deny this world rather than to conform it in order to live by this kind of the spirit of transcendence. Being empowered by the spirit of transcendence, we are able to criticize and overcome the ongoing globalization.

Lastly, by the help of the opinion of Bellah that the concern of theology and sociology belong to the same realm of the scientific world,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ology and sociology should meet and know each other in order to connect the OT tradition and globalizaion, and also emphasizes that the problem of globalizaion can be overcome by the symbol tradition of the OT.

Key word

Axial age

Transcendence

Globalization

Prophets

Weber

Bellah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5일